

KDB 생명 안양수 사장

“KDB는 지역민 맞춤형 건강·미래 설계사”

‘현장 경영’ 모토 최적 보험상품 개발
김장 나눔·기부 행사 등 매년 이웃사랑
“100세 시대 일반인도 자산관리 필요”



또한 그는 기업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공을 들이며 ‘상부상조’와 ‘나눔의 정신’을 직원과 함께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광주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11월에는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광주 김치타운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또한 물건을 기증하는 ‘굿윌캐мпей인’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 사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보험회사는 사실상

KDB생명이 유일하다”며 “그동안 보여주시던 광주전남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회사의 수익창출을 항상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 활동을 통해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생명보험회사의 최대 목적인 최고의 고객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은 누구나 질병과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되고, 준비없는 노후에 걱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생명보험사는 고객의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연령, 자산규모, 니즈에 맞는 적합한 재무설계와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객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생명보험사의 역할이며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고객서비스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들 가운데 KDB생명의 ‘꼭 필요한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사 최초로 전체 장기요양의 40%를 차지하는 3등급까지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대비가 가능토록 한 간병보험이라고 소개했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에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안 사장은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그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사전준비가 중요하다”며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자산을 모으고, 운영하고, 상속하는 데 준비와 사전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자만이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반인들의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금융 및 자산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가나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 출신인 안 사장은 한국산업은행 군산지점장, 기업구조조정 실장, KDB생명보험회사 수석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4.07 (-15.22)
-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1)
- ▲ 코스닥 690.77 (+0.45)
- ▲ 환율 (USD) 1164.60원 (+0.30)

한전 ‘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 SNS 대상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부문 우수 SNS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 제공>

금호그룹 ‘아시아펀드’ 설립

3000억원 조달 계획...금호산업 인수 마무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시아펀드’를 최근 설립하는 등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박 회장은 금호기업을 통한 금호산업 지분 인수와 별도로 아시아펀드를 통해 인수대금의 일부인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 금호기업과 아시아펀드를 새로 편입했다. 금호기업은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로 그간 여러 차례 거론된 기업이다.

하지만 아시아펀드의 신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아시아펀드는 지난 10월13일 설립된 자본금 1000만원(발행주식 2000주)의 SPCC로 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설립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지분,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 자금차입 또는 채무보증이라고 명시됐다.

펀드 설립 시점과 목적 등을 놓고 볼 때

아시아펀드는 금호산업 인수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갖고 있는 채권단에 인수자금 조달계획을 제시해 지난달 6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연말까지 7228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납부하면 금호산업을 6년 만에 되찾게 된다.

채권단이 승인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보유지분 매각 대금과 CJ그룹 등 전략적투자자(SI)를 대상으로 조달한 4200억원의 자금을 금호기업에 출자에 금호산업 지분을 사들인다. 나머지 3000억원엔 NH투자증권과 컨서스자산운용 등이 주도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인수금융으로 충당한다. 인수금융을 대는 투자자들의 면면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아시아펀드가 투자자금을 출자받아 인수금융을 대는 방식으로 금호산업 인수 주체인 금호기업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거나 금호기업과 공동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 설립 시점과 목적 등을 놓고 볼 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채용 활발

건설경기 회복 영향...중흥·남양 등 신입·경력직 모집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와 지역에 현장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잇따라 채용을 진행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광주·전남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남양건설, 대방건설과 부영주택, 서희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신입·경력 사원 채용을 채용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중흥건설은 건축직 신입과 경력직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인력포털인 건설위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며 경력직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복수자격자)와 공동주택 경력자, 고층·초고층 경력자를 우대해 채용한다.

남양건설은 건축직과 공사·공무직 경력자와 신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입사지원을 시행한다. 지난해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들었던 호반건설·금광

기업·동광건설·제일건설 등도 상시모집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 현장을 갖고 있는 대방건설은 하반기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기술직이 기술본부(건축, 전기, 설비), 공무본부(공무), 사업본부(설계) 등이며 관리직은 관리본부(회계), 사업본부(법무팀) 등이다. 오는 6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부문마다 상이하며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허리적인 중견 건설사들의 채용이 잇따르면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택과 다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설 관련 직종의 채용이 대부분 상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보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밥보다 빵 더 많이 먹는다

대형마트 매출 빵 10위·쌀 15위

식습관 변화로 대형마트에서 빵 매출액이 쌀 앞지르는 시대가 됐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출 분석 결과, 올해 1~11월 매출 순위로 일반 쌀은 15위를 기록한 반면 빵류는 10위를 차지해 순위가 역전됐다.

일반 쌀 매출은 2013년 7위, 2014년 9위에서 이번엔 6계단 떨어졌다.

전년대비 매출액으로 봐도 2014년 13.2%, 올해 1~11월 14.5%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 쌀소비량 자료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1인당 하루 쌀소비량은 202.9g이었으나 2010년 199.6g, 2011년 195.0g, 2012년 191.3g, 2013년 184.0g, 2014년 178.2g으로 줄었다. 대신 도넛·식빵·베이글 등 빵류 소비는 증가 추세다. 빵류 매출 순위는 2013년 13위, 2014년 12위에서 올해 1~11월 10위로 올랐다. /연합뉴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버라이어티

잘살아보세

통일준비 생활백서

남 南 최수종 벤지 이상민 권오중
 북 北 한숨이 이서운 신은하 김아라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